건설업최초로기능장 · 기술사자격동시보유

**이명래** 건축 시공 기능장 · 기술사

# " 건설 기능 인력에게 직업 비전 주는 제도 개선 소망 "

" 건축물은 당대에만 쓰고 폐기되는 일회성물품이아닙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만드는 한 축인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반영하듯건설현장에서는 일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에 따른 비용 상승과 품질 하락은 결국 국민들의몫이될것입니다. "

건설현장에서36년간기능직으로일해온 이명래 기능장은 우리 사회가 유독 근육을사용하는노동자에대한편견이깊다고 말했다. 특히,' 노가다 로 불리는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지나칠정도라고토로하였다. 같은직종이면서도 머리를 쓰는 설계자나 엔지니어는 전문인으로평가하면서기능직근로자는싸늘한 시선으로본다는것이다.

이명래기능장은스무살도안된어린나이에 건설 기능공으로 사회에 뛰어들었다. 미장 · 조적 · 방수등습식공사를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전국의건축 현장을 전전하였다고한다. 하지만젊은건설기능공의눈에 비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모습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입도 많지 않은 주름진 삶 그 자체였다. 기능공 스스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것을인생의종착역정도로치부하고 있었다. 도무지비전을찾을수가없었다.

세월이 흘러 이른바 현장 중간 관리자인 ' 십장 ' 이 되어서도 사회적 편견과 처우는 개선되지않았다. 게다가그와비슷한연배의원도급사직원들은설계도면조차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홀대하기 일쑤였다. 배우지 못한 서글픔과 함께 오기가 치솟았다. 그때부터그의인생은달라지기시작하였다." 개인의삶은어떤계기가있을때발전합니다. 당시원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인간이하의 취급을당하면서 공부를해야겠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국 그들이 저에게자극을준셈이지요. "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명래 기능장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 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였다. 스스로 책을 사보면서 3년간주경야독한결과기능사자격증을획득하였다. 1997년에는기사 자격을 땄다. 이 역시특별한자극때문이었다. 호텔공사를하면서 소위 ' 물량 도난 을 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원도급사에서 실제로는 120만㎡ 규모의 일을 시키고서는 100만㎡만 인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었던 그는 이를 승복할 수 없었고, 도면을 받아한달동안작업량을산출해제시하여 제대로인정을받았다.

여기에자신감을얻어기사자격을취득하였고, 같은해 내친 김에 기능장 시험마저통과했다. 1차와2차로치러진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해 국내에 30여 명밖에 없는건축시공기능장이된것이다. 그는" 현장 출신으로 기능장이 된 것은 처음일 것 " 이라고말했다.

2003년에는 엔지니어 자격의 최고봉인 기술사에 합격했다. 아홉 번의 시험과 네 번의 면접을 거쳐 이룩한 성과다. 국내최초로건설부문에서기능장과기술사자격을모두갖춘건설인이된것이다.

하지만 이명래 기능장은 요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후배 기능인들에게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라고 권유하지 못한다. 기능장의 경우 힘든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도 효용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했을 시 자본금을 1/2로 경감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건설 기능 인력에게 비전을주고젊은이들을끌어들이려면숙련공 처우 개선 등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기술자뿐만 아니라 기능자에 대한 배치 기준도 명시되고, 선진 외국처럼 숙련공들이 현장 검측을 할 수있도록제도화해야합니다. "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